



“봤지?”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메시(왼쪽)가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바르사 '꿈의 결승' 성사되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나란히 2-0 승
 프리미어리그·라리가 대표팀 대결 관심집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강호 FC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의 최고의 무대에서 우승컵을 다룰 가능성이 커졌다.
 바르셀로나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영원한 맞수'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리오넬 메시의 연속골을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기선을 제압한 바르셀로나는 다음 달 4일 안방인 누캅에서 열리는 4강 2차전에서 한 골 차로 쳐도 결승에 오르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맨유도 전날 살게04(독일)와의 4강 1차전 원정에서 2-0으로 이겨 5월5일 올드트래퍼드에서 펼쳐지는 2차전 홈경기에서 2골 차이로 승리하면 결승에 오를 희망이

생겼다.
 맨유와 바르사가 2년 만의 결승 리턴매치가 가시화한 셈이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가를 대표하는 양팀은 '더블 우승'이 걸려 있고 박지성(30·맨유)과 리오넬 메시(25·바르셀로나)가 재대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맨유는 2007-2008시즌 이후 3년 만의 '2관왕' 희망이 살아 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4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첼시에 승점 6점 차로 앞서 2008-2009시즌 이후 2년 만의 정상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한다면 더블 우승을 달성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도 프리메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승점 8점 차로 크게 앞서 3년 연속 우승에 다가서 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들어올려 더블을 달성하겠다는



기세다.
 양팀은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10차례 만나 3승4무3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맨유와 바르셀로나의 결승 대결이 성사된다면 박지성과 메시의 리턴매치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은 2007-2008시즌 4강에서 1, 2차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뛰면서 맨유를 이끌고 결승에 진출했다. 메시는 2008-2009시즌 결승에서 맨유를 꺾고 바르셀로나에 우승컵을 안겼다. /연합뉴스

메시 2골 호날두에 완승

'축구천재'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게 깨끗하게 설욕했다.
 메시는 28일 오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맞수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31분과 42분 연속골을 넣어 소속팀인 바르셀로나에 2-0 완승을 안겼다.
 이날 승리 바르셀로나는 우승을 차지한 2008-2009시즌 이후 2년 만에 대회 결승 진출을 눈앞에 뒀다.
 메시는 11골로 챔피언스리그 세 시즌 연속 득점왕을 사실상 예약했다.
 '엘 클라시코(El Clasico)'로 불리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최근 맞대결에서 메시는 호날두에게 한발 뒤처진 모습이었지만 이번 경기로 한 방에 만회했다.
 이날 메시가 날린 4개의 슈팅 중 유효슈팅 2개가 모두 골망을 흔들었다. 특히 아크 정면에서 상대 수비진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골 지역 오른쪽까지 치고 들어가 넣은 추가골은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불리는 메시의 진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연합뉴스

연아 '여유'·마오 '불안'

2011 피겨세계선수권 오늘 오후 6시30분 쇼트프로그램 시작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의 13개월 만의 복귀전인 2011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심히 대회를 준비해 온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한층 짙어진 긴장과 기대가 읽힌다.
 이번 대회의 초점은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일본)의 '동갑내기 맞수 대결'에 맞춰졌다.
 주니어 시절부터 정상을 놓고 경쟁해 온 둘의 연기는 단연코 현재 세계 피겨스케이팅 최고의 흥행 카드다. 미묘한 관계만큼이나 둘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피력하며 기대를 고조시켰던 두 선수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다소 엇갈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긴 공백을 깨고 오랜만에 나서는 실연임에도 김연아는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25일과 26일 공식 훈련에서 쇼트프로그램 '지젤'과 프리스케이팅 '오마주 투 코리아'를 처음 공개한 김연아는 연습임에도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프리스케이팅 훈련에서만 차례 클립 점프를 불안정하게 처리한 것을 제외하면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펼쳐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반면 아사다는 극심한 컨디션 난조를 겪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아사다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대회가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장소도 바뀌면서 1주일 이상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니 아사다를 지도해 온 사토 노부오 코치도 대회 2연패 전망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둘의 대결은 29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시작되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을 통해 마이 오른다. /연합뉴스

광주 FC, 대전 상대 연습 도전

5월1일 광주서 K리그 8라운드

안방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을 제압한 광주가 연습에 도전한다.
 광주 FC가 5월1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K리그 8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7라운드 경기에서 서울이라는 대어를 넘어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잠잠하던 공격라인이 주앙파울로의 스피드와 함께 깨어나고 있다. 서울과의 대결에서 공격수 주앙파울로는 두 경기 연속골에 성공하면서 한국무대 적응 완료를 알렸다.
 허벅지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관람석을 지켰던 주장 박기동도 그라운드 출격이 가능하다. 노련한 박호진을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도 든든하다.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두 겹게 수비벽을 쌓은 뒤 공세를 노리며 1-0의 승리를 올렸다. 서울의 발목을 잡은 수비수

유종현은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상으로 K리그 데뷔가 늦어졌던 이승기는 안성남과 함께 미드필더 진영에서 부진한 움직임이 공수를 조율해 주는 등 짜임새가 좋다.
 승부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대전의 골문을 여느냐다.
 가정의 달 5월 첫날 경기를 치르게 된 광주는 '엄마야 축구장 가자' 이벤트를 열고 팬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홈경기 입장권 구매 시 가족 1인 동반이 가능하고 문화상품권과 신세계 상품권, 롯데이탈레 상품권, 중흥골드스파이클링, 일본여행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됐다. 5월 8-22일 홈경기에서도 가족 1인 동반 입장 이벤트가 실시된다.
 한편 전남은 30일 오후 7시 원정길에 올라 부산 아이파크와 8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ju.co.kr

www.ah-english.com

원어민영어회화 압구정영어가 한다!

년수입 10만달러 이상인 가정이거나 자녀가 10만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회화**에 투자 해야합니다.

왜? 압구정영어(고소득자)은 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뽀족너를 합니다 (월 15만원/매25분수업)

압구정 원어민전용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달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환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욱연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無독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시공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